5.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눅 18:9~14

<유치부>

· **주제**
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.

· **예수님 생각하기**
세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.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.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.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.

· **성경의 초점**
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?
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.

<저·고학년>

· **주제**
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.

· **가스펠 링크**
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.

· **성경의 초점**
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?
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.

가족과 이야기해요

- 우리는 어떤 때 교만해지나요? 왜 교만해질까요?
- 우리는 어떤 때 겸손해지나요?
-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실까요?
-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교만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
가족과 활동해요

-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착시에 관한 책을 읽어 보세요. 거룩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거룩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.
- 함께 읽을 말씀 : 예레미야 11~14